

丹塗矢型 神婚전승에 관한 연구

-秦氏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秦 恩 淑*

本論文は、『古事記』『日本書紀』『山城国風土記逸文』を中心に、「丹塗矢型神婚伝承」の比較検討を試みたものである。神婚譚の一話型である丹塗矢型の神婚伝承とは、川上から流れて来る丹塗りの矢を持ち帰り、床の辺にさしおいた乙女が懐妊し、神の子を産むはなしである。三輪の大神主神と勢夜陀多良比売との神婚譚(『神武記』)、京都賀茂神社の縁起譚(『山城国風土記逸文』)などが、丹塗矢型神婚伝承に分類される代表的な説話である。類似伝承としては、阿加留比買の出生譚(『応神記』)・春山之霞丈夫の求婚譚(『応神記』)・加賀の佐太大神の出生譚(『出雲国風土記』)・柘枝伝説(『万葉集』)なども挙げ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

本論文は、まず各々の丹塗矢型の神婚譚を検討した上、当神婚伝承を構成する主要なモチーフについて考察した。「丹塗矢」のもっている意味とその象徴性、そして丹塗矢と婚姻し、神の子を産む神妻である勢夜陀多良比売・玉依媛についても考察を加えた。このような研究結果をもって、神婚譚の担い手として、新羅系渡来人といわれる秦氏を想定し、古代日本と韓国の交流の在り方についても考えてみ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

キーワード: 神婚譚、丹塗矢、玉依媛、秦氏
(신혼담, 니누리야, 다마요리히메, 하타씨)

1. 머리말

신성한 존재인 남신과 지상의 여인이 혼인하여 이로 인하여 신의 아이가 탄생되는 신혼담은 記記・風土記 등의 고대문헌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신혼전승의 하나로 '니누리야형(丹塗矢型)' 신혼전승이 있다. 강가에 있던 처녀가 강 위에서 떠내려 오는 니누리야를 주어들고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꽂아두자 이로 인하여 처녀

* 제주대학교 교수

가 회임하여 신의 아이가 탄생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진무(神武)천황의 황후선정의 단에 보이는 히메타타라이스케요리히메(比売多々良伊須氣余理比売)의 출생담(『神武記』, 이하 '이스케요리히메의 출생담'이라 칭한다), 교토 가모신사(賀茂神社)의 연기담(『山代国風土記逸文』, 이하 '가모전승'이라 칭한다)이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전승이라 하겠다.

이스케요리히메의 출생담은 세 종류의 미와야마(三輪山)설화의 하나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온 분야라고 하겠다. 즉 미와야마 제사의 변천과정, 왕조교체설과 설화의 관련성, 오모노누시노카미(大物主神)의 신격 등의 시점에서 고찰되었으며, 가모전승도 주로 뇌신(雷神)의 성격, 제사담당씨족, 모자신 등의 시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양 전승에 관한 연구가 방대하나 '니누리야형' 신흔담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는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니누리야형' 신흔담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우선 전술한 양 전승을 중심으로 니누리야형 신흔담의 특징을 살펴본 뒤, '丹塗矢'의 용어는 없지만 같은 유형으로 보이는 신흔담을 記紀・風土記에서 찾아 그 관련성을 보려고 한다. 그리고 본 신흔담의 주요 모티프의 상징성을 고찰한 뒤, 니누리야형 신흔담과 도래계 하타씨(秦氏)와의 관련성을 추정해보기로 한다.

2. 丹塗矢型 신흔전승

2.1 이스케요리히메(伊須氣余理比売)의 출생담

미와(三輪)의 오모노누시노카미(大物主神)는 미시마노미조쿠이(三島湍杵)의 딸 세야타타라히메(勢夜陀多良比売)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니누리야로 변하여 그녀가 용변을 보고 있는 변소 아래 도랑을 따라 흘러와서 아가씨의 음부를 찔렀다. 아가씨는 놀라서 허둥지둥 했다. 아가씨가 화살을 가지고 들어와서

침실에 두었더니 어느새 용모가 수려한 청년으로 변했다. 이에 청년과 아가씨가 혼인하여 호토타타라이스스키히메노미코토(富登多々良伊須々岐比売命)를 낳았다. 또 다른 이름은 히메타타라이스케요리히메(比売多々良伊須氣余理比売)라고 한다. 이런 까닭에 신의 아이라고 한다.(『神武記』)¹⁾

미시마노미조쿠이의 딸, 세야타타라히메의 아름다움에 반한 미와야마의 오모노누시노카미가 니누리야로 변하여 아가씨가 용변을 보고 있는 도랑에 흘러가서 접근한다. 아가씨가 화살을 침상에 꽂아 두자 용모가 수려한 청년으로 변신하여 혼인, 여아가 탄생하였는데 후에 진무천황의 황후로 간택된다. 이 전승은 진무천황의 황후 이스케요리히메의 출자가 신혼에 의해서 탄생된 신의 아이임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전승은 3종류의 오모노누시의 신혼담의 하나로 『崇神記』에서는 미와노키미(神君)·가모노키미(鵜君)의 선조 오타타네코(意富多々泥古)의 출생담 및 미와야마씨(三輪氏)의 씨족기원담으로 전개된다. 오모노누시노카미와 가와치(河内) 미노노무라(美努村)의 스에쓰미미노미코토(陶津耳命)의 딸 이쿠타마요리히메(活玉依比売) 사이에서 태어난 신의 아이가 오타타네코이다. 『崇神記』의 미와야마 전승은 '실꾸리형(苧環型)'으로 여성도 스에쓰미미노미코토의 딸 이쿠타마요리히메라고 되어 있다.

2.2 가모신사(加茂社)의 연기담

가모신사는 헤이안경 천도이후 황성진호의 신사로 이세신궁과

1) 三島の湊咋が女、名は勢夜陀多良比売、其の形麗美しきが故に、美和の大物主神、見感でて、其の美人の大便らむと為し時に、丹塗矢と化りて、其の大便らむと為し溝より流れ下りて、其の美人のほとを突きき。爾くしてその美人、驚きて、立ち走りいすきき。乃ち、其の矢を將ち来て、床の辺に置くに、忽ちに麗しき壯夫と成りき。即ち其の美人を娶りて、生みし子の名は、富登多々良伊須々岐比売命と謂ふ。亦の名は、比売多々良伊須氣余理比売と謂ふ。故、是を以て神の御子と謂ふぞ。(『神武記』 p.157) 이하 古事記의 인용은 山口佳紀・神野志隆光(1997) 『古事記』小学館에 의한다.

쌍 벽을 이룰 정도 중앙에서 높은 숭앙을 받았다. 이러한 가모신사의 창건전승은 『山城国風土記逸文』(이하 『風土記』라 칭한다)을 비롯하여 여러 사료에 전해지나 여기서는 『風土記』를 예를 들어 제시한다.

가모타케쓰노미노미코토(賀茂建角身命), 단바노쿠니(丹波国)의 가미노(神野)의 神 이카코야히메(伊可古夜日女)와 혼인하여 낳은 첫째를 다마요리히코(玉依日子), 둘째 아이를 다마요리히메(玉依日売)라고 하였다. 다마요리히메가 이시카와(石川)의 세미노오가와(瀬見小川)에서 놀고 있을 때 니누리야가 강 상류에서 떠내려 왔다. 화살을 침상 곁에 꽂아놓자 이윽고 회임을 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 (중략) 외조부의 이름을 따서 가모와 케이카쓰치노미코토(可茂別雷命)라 이름하였다. 니누리야는 오토쿠니군 신사(乙訓郡社)에 진좌한 호노이카쓰치노미고토(火雷命)를 말한다.²⁾

가모노아가타누시의 조상신 가모타케쓰노미노미코토의 딸 다마요리히메가 강 위에서 떠내려 오는 니누리야를 보고 이것을 주워 들고 침상 머리맡에 꽂아두었다가 이에 감응하여 낳은 가모와케이카쓰치를 낳고, 니누리야는 오토쿠니신사의 제신(祭神) 호노이카쓰치라고 하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모씨 관련 전승이지만 니누리야인 호노이카쓰치가 하타씨의 거주 중심지 오토쿠니에 진좌하고 있어 하타씨와의 관련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종의 설화가 『秦氏本系帳』에서는 하타씨 집안의 여자가 가도노가와 강가에서 빨래를 하다 상류에서 떠내려 온 화살에 의하

2) 賀茂建角身命、丹波の国の神野の神伊可古夜日女を娶きて生みませる子、玉依日子と名く。次、玉依日売と曰ふ。玉依日売、石川の瀬見の小川に川遊したまひし時、丹塗矢、川上ゆ流れ下りき。乃ち取りて床辺に挿し置き、遂に孕みて男子生れませり。(中略)乃ち外祖父の名に因りて、可茂の別雷の命と号く。謂ゆる丹塗矢は乙訓の郡の社に坐せる火の雷の命なり。(「賀茂の社」『山城国風土記逸文』pp.437-439) 이하 風土記의 본문 인용은 植垣節也(1998) 『風土記』小学館에 의한다.

여 임신을 하여 와케이카쓰치를 낳고 화살은 하타씨가 관장하는 마쓰노카미(松尾神)라고 전하고 있다.

처음에 하타씨의 여자가 가도노가와(葛野河) 강가에서 빨래를 하다 상류에서 떠내려 온 화살을 주어들고 집에 돌아와 문 위에 꽂아 두었더니 이로 인하여 남편 없이 임신을 하여 남자 아이를 낳았다. (중략) 이러한 연유로 가미가모신사(上賀茂神社)를 와케이카쓰치노카미(別雷神)라 하고 시모가모신사(下賀茂神社)를 어버이신이라 칭하였다. 화살은 바로 마쓰노대명신(松尾大明神)이다. (『本朝月令』所引『秦氏本系帳』)³⁾

양 전승은 매우 유사하여 『風土記』의 가모전승에 '하타씨 출자의 여자'와 '松尾神'라는 두 요소만 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니누리야와 혼인하는 여성을 하타씨 출신의 여자로 한정함으로써 가모신을 하타씨가 관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風土記』의 가모전승을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元亨釈書』(14권)에 이즈모 거리(出雲路)에 사는 처녀가 화살과 혼인하는 전승이 기재되어 있어⁴⁾ 이즈모씨와 하타씨가 관련 있는 씨족임을 말해 준다.⁵⁾ 이외에도 『袖中抄』 『年中行事秘抄』 『賀茂』(謡曲) 『二十二社

3) 初め、秦氏の女子、葛野河に出で、衣裳を澣濯せし時、一矢有り、上より流れ下る。女子之を取り、還り来て戸上に刺し置く。是に於て、女夫無くして妊み、既にして男子を生む。(中略)故、鴨の上の社を別雷の神と号ふ。鴨の下を御祖神と号ふ。戸上の矢は松尾大明神是なり。(『秦氏本系帳』)

4) 교토 북쪽 이즈모 거리에 처녀가 있었다. 가모가와 강가에서 빨래를 하다 떠내려 온 화살을 주워들고 보니 활고자에 오리깃털이 달려 있었다. 처녀가 이를 갖고 집에 돌아와 처마에 꽂아놓았더니 이때부터 여자는 임신을 하여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다. (중략) 화살에 오리깃털이 달려있어서 아이를 가모씨라 불렀다. 이어 아이는 버락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城北出雲路に少女有り。鴨河に臨みて衣を浣ふ。一箭流に沿ひて来る。女取りて見るに鴨の羽を箆に加ふ。女携へて家に還り。簪牙に挿む。此より女娠めり。己にして男児を生む。(中略)是箭鴨羽を属く。宜しく此児に姓して賀茂氏と為すべし。是に於いて児化して雷と成り天に上る。『元亨釈書』 14권)

5) 히고 가즈오(肥後和男)는 가모신사와 하타씨가 봉제하는 마쓰노신사는 미아레(御阿礼)를 세우는 점 등 유사점이 많아 가모씨와 하타씨는 공통적인 신앙체계를 갖는 씨족임을 말해준다고 보았다. 그리고 또 교토의 가모와 동일한 장소에 御祖神社와 出雲井於神社 및 出雲高野神社, 出雲郷이 있어 이곳은 원래 出雲系

註式』 등에도 『風土記』과 유사한 전승이 실려 있어서, 니누리야를 모티프로 하는 가모전승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風土記』의 가모전승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⁶⁾

그리고 『崇神記』에서는 오타타네코를 미와노키미·가모노키미의 공통조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쓰라기노가모씨(葛城鴨氏)와 야마시로가모씨(山城賀茂氏)는 신앙상 동계의 씨족이어서⁷⁾ 이스케요리히메의 출생담과 가모전승은 공통의 신앙과 습속을 기반으로 한 전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오미와씨는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씨족이었다. 7세기경조한반도에 파견된 사절과 장군 이름에 이 씨족의 일족인물이 많아서 외교에 능통한 씨족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이 씨족에서 분파된 야마시로(山城)거주의 오미와씨(大三輪氏)는 樂家が 되어 유명한 고려악 ‘소시모리(蘇志摩利)’을 담당하고 있어 한반도계의 악곡의 전래자로서 활약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씨족이라 할 수 있겠다.

2.3 기타 丹塗矢型 神婚譚

내방신이 지상의 여성에게 접근할 때 니누리야로 변하지는 않지

사회였는데 후에 야마토에서 가모씨가 이주해 와서 이곳을 점거하여 혼재되면서 가모와 이즈모는 유사한 신앙체계를 갖게 되는 씨족으로 보았다. 肥後和男(1938) 『賀茂伝説考』 『日本神話研究』 河出書房, p.255、pp.279-281.

6) 우와이 히사요시(上井久義)는 『日本古代の親族と祭祀』에서 본 설화를 상세히 검토한 후, 씨족의 출자전승은 자신들의 씨족 출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秦氏本系帳』의 기술은 전반에 가모씨 전승을 나란히 삽입하고 있는 점은 부자연스러워 하타씨가 가모씨의 출자전승을 모델로 하여 자기들의 출자전승을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中村修也(1994) 『秦氏とカモ氏』 臨川書店, p.78에서 재인용

7) 『風土記』의 가모전승에 의하면 가모타케쓰노미는 야마토의 가쓰라기야마(葛城山)에서 야마시로(岡田)의 가모(賀茂), 가도노카와(葛野河)와 가모가와(賀茂河)의 합류점에 이르러 가모가와 상류에 진좌한다. 즉 이러한 가모타케쓰노미의 편력담은 야마토의 가쓰라기 지방을 본거로 한 가모씨(鴨氏)와 야마시로를 본거로 한 가모아가타누시와(賀茂県主)가 이즈모계의 동족관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 화살이 신혼에 이르는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는 전승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応神記』의 하루야마노카스미오토코(春山之霞壯夫)의 구혼담에 화살의 모티프가 등장한다.

활과 화살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활과 화살을 주어서 아가씨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자 옷과 활, 화살이 모두 등꽃으로 변하였다. 그러자 하루야마노카스미오토코는 활과 화살을 아가씨의 변소에 걸어놓았다. 아가씨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활과 화살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혼인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応神記』)⁸⁾

이즈시(出石)의 야마에노오카미(八前大神)의 딸 이즈시오토메에게 많은 신들이 구혼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그런데 하루야마노카스미오토코는 활과 화살을 등꽃으로 변화시켜 이즈시오토메의 변소에 걸어놓자 이로 인하여 혼인이 성사되어 아이를 낳는다. 변소에 걸쳐놓은 화살이 매개가 되어 혼인이 성사하는 것은 강에 떠내려 온 화살을 주워든 처녀가 혼인하여 신의 아이를 낳는다는 니누리야 신혼전승의 변용으로 볼 수 있다. 이즈시씨가 봉재하는 야마에노오카미는 신라왕자 출신 아메노히보코(天日矛)가 신라에서 가져온 신보로 이 설화 역시 아메노히보코를 선조로 하는 신라계 도래씨족 이즈시씨가 전하고 있다.⁹⁾

8) 亦、弓矢を作りて、その衣・褌等を服しめ、その弓矢を取らしめて、その嬢子の家に遣れば、その衣服と弓矢と、悉く藤の花と成りき。ここに、春山之霞壯夫、その弓矢を以て、嬢子の厠にかけき。爾して伊豆志嬢子、その花を異しと思ひて、將ち来る時に、その嬢子の後に立ちて、その屋に入りて、即ち婚ひき。故、一の子を生みき。(『応神記』 pp.279-280)

9) 아메노히보코가 전래한 신보는 出石神社에 모셔지고 있는데 応神記에는 8종, 垂仁紀에는 7종으로 記紀의 기술이 다르다. 이즈시 지방에는 아메노히보코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아메노히보코와 이즈시의 신보에 관한 연구는 三品彰英(1972) 『増補日鮮神話前説の研究』 平凡社・松前健(1960) 『日本神話の研究』 桜楓社・今井啓一(1966) 『天日槍』 綜芸舎 등의 선행논문이 있다. 또 고고학에서도 이즈시 지방과 하타씨의 관련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이즈시의 '袴狭 유적'은 나라시대에서 헤이안시대에 걸친 이즈시郡의 관아 유적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출토한 40점 이상의 목간이나 목서 토기에 '出石秦・秦磐・秦部・秦安' 라는 글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 이즈시 지방이 신라계 도래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는 일광을 받아 잉태한 적옥에서 화생한 아카루히메(阿加留比売)의 출생담을 니누리야형 신혼담의 유사전승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⁰⁾ 화살은 일광의 상징이기도 하여 일광감정 설화도 니누리야형 신혼담의 하나로 간주해도 좋을 듯하다. 신라의 여신 아카루히메 출생담은 주몽신화와 같은 일광감정 모티프와 혁거세신화 등에서 보이는 난생 모티프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따로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계통의 신화를 일본에 전래한 신라계 이주민 집단의 존재를 상정할 필요도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도 니누리야형 신혼담은 신라와의 연관성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타노오카미가 막 태어나려고 할 때 마침 활과 화살이 없어졌다. 그때 미오야간무스비노미코토의 딸 기사키히메노미코토가 “태어나는 아이가 마스라카미의 아들이라면 사라진 활이여 어서 나오라!”라고 기원했다. 그러자 활과 화살이 물에 떠서 흘러왔다. (加賀神崎『出雲風土記』)¹¹⁾

『出雲国風土記』에 전해진 사타노오카미의 출생담이다. 우케히에 의한 부친판정이라는 주술적 요소와 동굴을 화살로 관통하는 신이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떠내려 온 화살에 의해 회임하거나 화살로 동굴을 쏘자 불고 밝게 빛난다는 것을 보면 니누리야형 신혼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화살 대신 이와 유사한 물건으로 젓가락이나 나뭇가지가 강 위쪽에서 떠내려 전승이 있다. 스사노는 강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젓가락을 보고 찾아가서 구시나다히메(櫛名田比売)를 구하고 아내로 맞는다. 비록 젓가락이라는 생활용품이 흘러오는 설정이 되

인씨족인 하타씨의 거주지역임을 알 수 있다. 加藤謙吉(2002)『秦氏とその民』白水社、p.200.

10) 高木敏雄(1973)『日本神話伝説の研究』平凡社、p.317.

11) 佐太の大神の産生まれませる処なり。産生まれまさむ時に臨みて、弓箭亡せましき。その時、御祖神魂の命の御子、き佐加比売の命、願ぎたまひしく、「吾が御子、麻須羅神の御子にまさば、亡せし弓箭出で来」と願ぎましき。その時角の弓箭、水の随に流れ出でき。(加賀神崎条『出雲国風土記』pp.181-182)

어서 현실적인 풍취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배경에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화살이나 막대기, 대나무와 같은 물건을 요리시료로 삼고 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다는 신앙이 깔려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万葉集』『懷風藻』에는 ‘쓰미노에(柘枝)전설’이 실려 있다.¹²⁾ 요시노(吉野)강가에 우마시네(味稻)라는 어부가 있었는데 그가 쳐놓은 어랑에 강 위에서 떠내려 온 뽕나무가지가 걸리고 이윽고 선녀(仙媛)로 변하여서 두 사람이 만난다는 이야기로 추정된다. 니누리야형 신혼담과는 반대로 강을 따라 흘러온 내방신은 여성이다. 니누리야형 신혼담이 전설이 신선사상의 영향이 강한 요시노에서 신선사상의 유행에 더불어 도코요(常世)에서 선녀가 와서 복을 준다는 신선담으로 윤색 변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쓰미노에 전설은 신성한 존재가 화살로 변하여 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다는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상정할 수 있으며, 니누리야형 신혼담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丹塗矢와 神妻

제2장에서는 니누리야형 신혼담으로 보이는 각 전승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본 신혼담을 구성하는 주요 모티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화살·니누리야가 상징하는 바를 고찰한 다음, 니누리야를 맞이하는 여성, 즉 神妻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1 丹塗矢

일본의 신혼담에서 남신은 주로 뱀, 도검이나 화살과 연관되어 이야기되는데 본 신혼담의 특징은 내방신이 니누리야의 모습으로

12) 『万葉集』에 쓰미노에 전설을 읊은 「仙柘枝の歌三首」(卷三・385~387)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 『懷風藻』 및 『続日本後紀』에도 그 편린이 남아 있다.

출현한다는 점이다. 신혼설화에서 화살이 갖는 상징성은 다양하여¹³⁾ ①남성의 상징¹⁴⁾ ②뇌신(雷神)의 표징·번개의 부호, 일광의 상징¹⁵⁾ ③천신 또는 천자의 지물¹⁶⁾ ④ love-charm¹⁷⁾ ⑤ 사령(邪靈)제어, 즉辟邪의 주술¹⁸⁾, ⑦ 신령이 깃드는 요리시로이자 점유의 표식으로 보고 있다.¹⁹⁾

상대일본의 화살은 일반적으로 野矢나 征矢의 종류로 특별히 눈에 띄는 장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니누리야는 일종의 예외로 여기에 특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기물을 붉게 칠하는 것은 장식 목적 이외에도 붉은색이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니누리야의 ‘니(丹)’는 다음 설명처럼 적색, 적토 또는 적색안료를 가리킨다.

丹은 ‘明’ ‘土’와 같은 뜻으로 적색안료를 말한다. 적토나 진사·연단을 포함하는 적토가 안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료로서 적토를 가리키거나 붉은색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²⁰⁾

따라서 니누리야는 칠단·연단기술로 ‘적색 안료로 붉은 칠을 한 화살’이라고 생각된다. 진사·단사·주사라고도 불리는 적색안료는 일본에서는 야요이시대부터 산출되어 『魏志倭人伝』에도 이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²¹⁾ 고분의 내벽이나 석관채색, 벽화에 주로 사

13) 화살의 상징에 대해서는 次田真幸(1973) 『日本神話の構成』 明治書院、p.379의 분류를 기본틀로 하여 日光의 상징, 생명력, 먹이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의 상징이라는 점도 덧붙여서 정리하였다.

14) E.E.Goldsmith 『生命象徴と性象徴』、松村武雄(1983) 『日本神話の研究4』 培風館、p.735에서 재인용

15) 高木敏雄、前掲書、p.201.

16) 三品彰英(1975) 『建国神話の諸問題』 平凡社、pp.258-262.

17) 松村武雄、前掲書、p.737.

18) 松村武雄、前掲書、pp.732-743.

19) 柳田国男(1962) 『定本柳田国男集9』 筑摩書房、pp.41-62. 次田真幸、前掲書、p.381. 倉野憲治・武田祐吉校注(1982) 『古事記』 岩波書店、p.161.

20) 上代語辞典編纂委員会(1983) 『時代別国語大辞典 上代編』 三省堂、p.546.

21) 주단(朱丹)을 사용하여 신체를 바르는데 마치 중국인이 분을 바르듯 한다. (朱

용되었는데 이는 ‘벽사’를 위하여 적색안료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적색안료를 칠한 니누리야는 벽사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붉은색은 원래 혈액의 색이며, 불의 색이기도 하여 붉은색 그 자체에 사령을 제거하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보는 습속은 많은 민족에 있어 보편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²²⁾

그러나 붉은색이 벽사의 힘을 갖고 있더라도 신혼설화 속에서 붉은색은 뇌신과의 관련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한다. 가모전승의 호노이카쓰치는 그 이름에서도 뇌신임을 알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続日本紀』 기사에 의하면 기우에 영험이 있는 신으로 숭앙을 받아 전국적인 제사대상이 되고 있다.

또 칙령을 내려 “야마시로국 오토쿠니군에 진좌한 호노이카쓰치노카미는 가뭄 때 기우를 하면 큰 효험이 있다.”(『続日本紀』大宝2년7월8일 조)²³⁾

오곡 특히 벼가 자랄 무렵 가뭄이 들면 농민들은 뇌신에게 빌어 물을 청하였다. 오모노누시도 “우레 같은 천둥이 울리고 번쩍이는 안광”(『雄略紀』7年)의 蛇神으로 표현되어 있어 전형적인 뇌신의 모습으로 형용되고 있다.

다카기 도시오는 호노이카쓰치, 오모노누시 모두 전광벽력의 뇌신이며, 니누리야는 뇌신의 위력 발현의 하나로서 전광의 상징이라고 해석하였다.²⁴⁾ 구라노 겐지(倉野憲治)도 니누리야는 뇌신의 상

丹を以て其の身体に塗る、中国の粉を用うるが如きなり。)和田清・石原道博編訳(1981)『魏志倭人伝・後漢書倭伝・宋書倭国伝・隋書倭国伝』岩波書店、p.45.

22)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는 붉은색은 혈액 그 자체를 상징하며, 혈액은 곧 생명으로 강력한 부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령을 강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여겨져 시신을 붉게 칠하거나 적색토를 시신 근처에 두는 습속이 많은 민족에게 발견되었다고 논하였다. 松村武雄、前掲書、p.739.

23) また山背国乙訓郡にある火雷神は、雨乞いをする度に徴験がある。(『続日本紀』大宝2年7月8日 条) 宇治谷孟訳註(2001)『続日本紀(上)』講談社、p.51.

24) 高木敏雄、前掲書、p.321.

징으로 붉은 칠을 한 것은 불의 색을 나타내는 것이며, 상대일본에서는 뇌신과 蛇神은 동일시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²⁵⁾ 이처럼 니누리야가 뇌신의 상징이 된 것은 하늘에 번쩍이는 뇌전의 신속한 위력이 니누리야를 연상시킨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히고 가즈오는 『続日本記』(文武天皇2년 3월조)를 보면²⁶⁾ 나라시대의 가모 마쓰리의 주요사항이 騎射였음을 알 수 있기에 여기서는 화살이 뇌신의 상징이 아니라 용맹한 신이 자신의 위력을 화살에 가탁한 것으로 봐야 하며 니누리야는 死者의 피를 묻힌 화살을 상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²⁷⁾

그러나 붉은색이 뇌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색인 것임은 분명하며 우리나라의 혁거세신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붉게 되는 것은 신위의 발동을 의미하거나 신성한 존재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는 중국의 天帝나 天子의 ‘彤弓彤矢’ 등 붉은 도검이 천자의 보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였다.²⁸⁾ 그렇다면 신위의 발동으로서의 니누리야를 보려고 할 때 ‘붉게 칠(赤染)’하는 제의 및 주술의 담당집단과 본 전승과의 관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3.2 神妻

가모전승에서 니누리야와 혼인하는 여성을 ‘다마요리히메’라고 하며, 이스케요리히메의 출생담에서는 미시마노미조쿠이의 딸 ‘세야타타라히메’이다. 가모전승에서 다마요리히메는 야마시로가모씨의 조상 가모타케쓰노미노미코토의 딸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마요리히메는 상대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 중에서도 해신의 딸 다마요리히

25) 倉野憲治・武田祐吉校注、前掲書、p.345.

26) 山城国賀茂祭の日衆を会し騎射するを禁む。(『続日本紀』文武天皇 2年 3月 辛巳条)

27) 肥後和男、前掲書、pp.231-234.

28) 三品彰英(1975) 『建国神話の諸問題』 平凡社、pp.272-274.

메는 유명하다. 언니인 도요타마히메를 대신하여 우가야후키아헤즈를 양육하여 후에는 그 처가 되어 진무천황을 비롯한 아이들을 낳는다. 또 '실꾸리형' 미와야마 전승에서 오모노누시와 혼인하는 스에쓰미미노미코토(陶津耳命)의 딸의 이름 역시 이쿠타마요리히메(活玉依比売)라 칭한다. 다마요리히메를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는 加茂神社(京都府), 青梅神社(新潟県), 知立神社(愛知県) 등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는 다마요리히메를 민족학적으로 고찰하였다. 야나기타는 'タマ' 원래 '神靈'이며 'コル'라는 것은 곧 '신령이 인간에게 빙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후, 신과 혼인하는 여성에게서 무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와 같은 여성이 다마요리히메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후에 신처로서 전국적으로 제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다마요리히메는 "처음에는 고급의 제사여관(祭祀女官)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지 모른다."고 논하였다.²⁹⁾

가모전승의 신처 다마요리히메도 고유명사가 아니라 신을 강령시켜 이를 제사하는 무녀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후 신을 제사하는 자(斎女)에서 祭神으로 승격되어 이후 다마요리히메는 '賀茂・加茂・鴨'라고 표기되는 계열신사의 제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스케요리히메의 출생담에서는 니누리야와 혼인하는 여성은 『日本書紀』에서는 다마쿠시히메(玉櫛姫)라고 명하고 있다. 요시이 이와오(吉井巖)의 다음과 같은 설명처럼 다마쿠시히메도 다마요리히메와 마찬가지로 무녀적인 여성을 뜻하는 말이라 하겠다.

다마쿠시히메도 그 이름의 クシ가 奇し・櫛・串, 물건으로서는 柱・杭과 연관되어 요리시로로 세워지는 聖座를 의미하여 다마쿠시히메는 신을 맞이하여 봉사하는 여자의 뜻이다.³⁰⁾

29) 柳田国男(1962) 「玉依姫考」『定本柳田国男集9』筑摩書房、pp.41-62.

30) 吉井巖(1992) 『天皇の系譜と神話(二)』塙書房、p.190.

그러나 『神武記』에서는 ‘セヤタタラヒメ’라고 독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있다. ‘セヤタタラヒメ’의 명의를 대해서는 크게 두 설이 있다. 우선 大系本の 두주는 セヤ는 금속으로 된 화살촉을 말하는 ‘ソヤ’의 転音이며, ‘タタラ’는 ‘立タレ’의 오래된 명사형으로 보고 ‘セヤタタラ’의 의미를 ‘矢を立てられた女’³¹⁾이라고 해석하였다.³²⁾ 즉 신령이 병의하는 여성, 신령을 제사하는 여성 무녀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시이는 이러한 대계본의 해석에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矢を立てられる’라는 것은 신의 점지한 여성이라는 뜻을 갖지만 이러한 이름이 무녀를 뜻하는 다른 용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녀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전승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가공의 이름이라고 생각된다.³³⁾

즉, 무녀를 뜻하는 용어에서 세야타타라히메의 용례가 전무한 점에 착안하여 다마요리히메와 같은 용어처럼 무녀를 의미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전승 내용에 맞추어서 새롭게 창출된 이름이라고 보았다. 더 나가서 요시이는 이스케요리히메의 출생담은 가모씨의 니누리야형 신훈담을 적극적으로 채용, 전승을 변용하여 진무전황의 황후 출생담으로 재구성하였다고 논하였다.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タタラ(踏鞴)’를 중시하는 관점이 있다. ‘세야타타라히메’, ‘히메타타라이스즈히메(姫踏鞴五十鈴媛命)’(神武即位前紀)’라는 모녀 이름에서 공통점이 ‘踏鞴’임을 중시하여 가누치직(鍛冶職)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샤만으로 보는 설 등이 있다. 즉 ‘タタラ’는 제철 및 제련작업에 사용하였던 ‘풀무(鞴)’와 관련된 이름으로³⁴⁾ 와타나베 와타루(渡辺渡)에 의하면 ‘タタラ’라고 하는

31) ‘白羽の矢が立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신공양으로 신에게 바쳐지는 여자의 집 지붕에 흰 살갗이 달린 화살을 꽂아 놓았다. 따라서 ‘신령이 병의하는 여자’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32)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校注(1983) 『日本書紀(上)』 岩波書店、p.131.

33) 吉井巖、前掲書、pp.199-200.

용어는 'Tartar'에서 진화된 말로 알타이 지방을 중심으로 동서로 활약했던 유목민 타타루족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그들은 황금 그 외의 채광야금업을 일으켰는데 그 제철용광로는 인도에서 몽고에 들어가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었다.³⁵⁾ 마쓰마에 다케시(松前健)도 대장장이를 'タタラ師', 작업장을 'タタラ場'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가누치베(鍛冶部)와의 관계는 명료하다고 보았다. 'タタラ'를 사용하는 대장장이는 고대에서는 금속정련의 기술자로서 무기나 농구제작에 관여하는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존재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철 제련 기술을 갖고 있는 집단이 이 신화의 배경에 있음을 말해준다고 보았다.³⁶⁾ 쓰기다 마사키(次田真幸) 역시 이러한 논에 동조하여 이스케이리히메의 출생담에서는 남성이 뇌신이며 여성은 '踏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신혼설화의 배경에는 철기구조의 문화가 있다고 보았다.³⁷⁾ 철기문화는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소아시아에서 일어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만몽 및 시베리아에 전해지고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으로 전래된 것으로 일컬어진다. 『繼體紀』 『敏達紀』 『推古紀』에 踏鞴の津・多多羅原・多多羅邑・多多羅城 등의 지명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점, 『新撰姓氏錄』 諸藩의 部에 多多良公(任那系)의 이름이 있는 점 등에서 'タタラ'가 우리나라와 관련 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쓰마에³⁸⁾는 미와(三輪)나 아나시(穴師) 등의 가누치 집단은 아마도 반도계의 가라카누치베(韓鍛冶部)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니누리야로 변한 호노이카쓰치나 오모노누시는 뇌신의 신격을 갖추고 있다. 뇌신은 대장장이 집단 사이에서는 불의 신으로 신앙되었다. '히메타타라이스즈히메'는 모친이름인 '세야타타라'에서 계승된 이름을 주체로 하여 'タタラ'에 '踏鞴'의 문자를 쓰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전승에 맞춘 가공의 인물이라는 요시이의 의

34) 倉野憲司(1978) 『古事記評解』 有精堂、p.108.

35) 渡辺渡 『地質学雑誌』26の310, 次田真幸、前掲書、p.390에서 재인용.

36) 松前健(1985) 『大和国家と神話伝承』 雄山閣、p.223.

37) 次田真幸、前掲書、pp.401-405.

38) 松前健、前掲書、p.222.

견을 따르면 이러한 가공의 인물을 창작할 때 역시 ‘タタラ’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본 전승의 담당자를 유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4. 丹塗矢型 神婚譚과 秦氏

이 장에서는 니누리야형 신혼담을 전래, 담당한 집단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본 신혼담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니누리야인 점에 있으며, ‘丹’이 갖는 주술성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미와야마 전승에서 내방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적토를 마루에 뿌리거나, 진구(神功)황후전승에서는 적토를 창에 발라 뱃머리에 세우고 옷이며 군복을 모두 붉은색으로 물들여 신라정벌에 성공한다. 이처럼 적토를 뿌리거나 창과 배, 옷을 붉게 물들이는 것은 앞 장에서 본 것처럼 붉은색이 벽사의 주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靈異記』의 ‘치히사코베(小子部)’ 이야기에서 스가루(栖軽)가 붉은색 무장을 하고 벼락을 잡으러 가는 것도³⁹⁾ 붉은색에 의한 벽사의 주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주술적 기능을 담당했던 집단에 대해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는 ‘赤染’를 신라·가라계의 주술로 간주하고 있다.⁴⁰⁾ 시다 준이치(志田諄一) 역시 치히사코베가 통솔했던 궁정의 ‘火炬小子・火炬童女’가 하타씨의 동녀로 구성되었다는 『延喜式』 기록에 주목하여 하타씨에 의해 전래된 주술이라는 설을 제기하고 있다.⁴¹⁾

붉은색과 관련 있는 씨족에 아카조메씨(赤染氏)가 있다. 붉게 물들인다는 ‘아카조메’라는 말에서 상기되는 ‘아카조메씨’는 신라국

39) 이마에 붉은 가발을 붙이고 손에 붉은 깃발과 창을 들고 말에 타서 아베야마다와 도우라사 앞을 손잡고 달렸다. (緋の纓を額に著け、赤き幡鉾を擎げて、馬に乗り、阿倍の山田の前の道と豊浦寺の前の路とより走り行きぬ。『日本靈異記』)

40) 松村武雄、前掲書、pp.732-743.

41) 志田諄一(1960) 「小子部の性質について」『続日本紀研究』7卷9号、加藤謙吉、前掲書、pp.48-50에서 재인용

神인 가와라노카미(香春神)의 사제를 배출한 씨족이며, 하타씨와 동족 또는 동일의 생활 집단을 형성한 신라계 도래인 씨족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銅의 채굴, 정련 기술을 전래한 신라계 도래씨족이 가와라 동쪽지역에 정주하면서 동의 채굴을 담당하였던 듯하다. 가와라노카미는 신라에서 도래한 씨족, 구체적으로 하타씨의 봉채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와라 지방에는 신라계 기와 등의 출토되고 고대제사의 유구로 추정되는 지역도 남아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방증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와라신사의 사제직을 하타씨와 연관이 깊은 아카조메씨와 쓰루가씨(敦賀氏)가 담당하고 있다.

신라계 도래씨족 하타씨는 중앙정권 보다는 지방에 뿌리를 둔殖産적 성격은 잘 알려진 바이다. 양잠, 기직제품의 공납 이외에 하타씨 집단이 종사한 생산 활동 중에 광산자원의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가토 겐기치(加藤謙吉)에 의하면 광산 중에서 주사(朱砂)채굴 및 수은제련에도 관여하였으며, 주사는 적색안료로서 사용되었다. 그 사용의 역사는 매우 길어 천연의 것도 있지만 주사를 가열하여 수은을 얻을 수 있어서 수은의 수요량이 급증, 수은 제련이 성행하였다. 일본 각지에 보이는 '니우(丹生)' 지명이 주사의 산출에 유래하는 지명이며 니우쓰히메(丹生都比売) 여신을 제사하는 니우씨(丹生氏)가 고대 수은채광을 담당하였지만 6세기 중엽 새로운 수은 제련법이 들어오자 하타씨 집단이 수은 제련용의 주사채굴을 담당한 주체였다고 추측하였다.⁴²⁾ 이렇다면 붉은 화살이나 붉게 칠하는 주술은 신라계, 특히 하타씨 집단의 주술과의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고토시로누시노카미가 야히로쿠마와니(八尋熊鰐)로 변하여
미시마의 미조쿠이히메와 혼인하여 (혹은 다마쿠시히메라 한다)
다타라이스즈히메를 낳았다. 이는 야마토이와레호호데미의
황후가 되었다. (『神代紀』八段一書第六)⁴³⁾

42) 加藤謙吉、前掲書、pp.121-122.

43) 又曰く、神事代主神、八尋熊鰐に化為り、三嶋溝織姫に通ひたまひて、或ひは云

앞에서 언급한 이스케요리히메의 출생담은 『神代紀』(第八段一書第六)에서는 이류혼인담으로 변용되어 있다. 즉 오모노누시노카미가 고토시로누시노카미(事代主神), 니누리야가 '야히로쿠마와니(八尋熊和迹)'로 바뀌어 있는데 니누리야와 야히로쿠마와니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야히로와니는 도요타마비메가 출산할 때 변하였다는 '야히로쿠마와니(八尋熊和迹)'로, 다마요리히메의 아들 이나이노카미(稻飯神)가 폭풍우를 만나 배가 표류하자 이나이노카미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조상의 나라, 즉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사히모치神(佐比持神・鋤持神)', 즉 히토히로와니(一尋和迹)'가 되었다고 한다.

이 때 이나이노미코토 한탄하여 이르기를 “나의 선조는 천신이며 어머니는 해신이다. 그런데 어찌 나를 이리 괴롭히는가!”라 말하고 검을 빼어들고 바다로 투신하여서 사이모치노카미가 되었다. (『神武紀』)44)

그런데 이나이노미코토는 『新撰姓氏錄』(右京皇別)에 의하면 신라국왕의 조상이며 후손으로 시라키(新良貴)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八尋熊和迹(一尋和迹)' 관련전승 역시 신라계 도래인과 상관이 깊은 모티프라 할 수 있다.

또 가모의 신 호노이카쓰치가 하타씨의 거주 중심지역인 오토쿠니군에 진좌하고 있어 하타씨와의 관련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秦氏本系帳』에서는 니누리야를 마쓰노대명신이라 한다. 마쓰노대사는 701년 하타노이미키토리(秦忌寸都理)가 창건하여 지마루메(知麻留女)가 오야마쿠이노카미(大山咋神)와 무나가타카미인 이치키시마히메노미코토(市杵嶋姫命) 2神을 모신데서 비롯

はく、玉櫛姫といふ、児姫踏躑五十鈴姫命を生みたまふ。是、神日本磐余彦火火見天皇の后と為る。(『神代紀』 p.105) 이하 『日本書紀』는 小島憲之・直木孝次郎・西宮一民・中西進(1994) 『日本書紀』小学館에서 인용하였다.

44) 時に稻飯命、乃ち歎きて曰はく、「ああ、吾が祖は即ち天神、母は即ち海神なり。如何ぞ我を陸に厄なめ、夏我を海に厄むる」とのたまふ。言ひをへ、乃ち剣を抜き海に入り、鋤持神に化為りたまふ。(『神武紀』 pp.202-203)

되었다.

오야마쿠이노카미 또 다른 이름은 야마스에노누시노카미라 한다. 이 신은 오우미의 히에산과 가도노마쓰노에도 진좌하며 나리가부라(鳴籥)를 사용하는 신이다. (『神代記』)⁴⁵⁾

하타씨가 봉재하는 마쓰노대사의 오야마쿠이는 소리가 나는 살촉 '나리가부라(鳴籥)'⁴⁶⁾를 사용하는 신이라고 부가설명 되어 있다. 이외에도 오쿠니누시노카미(大國主神)가 네노쿠니(根の國)를 방문했을 때 장인 스사노가 '나리가부라'를 드넓은 벌판을 향해 쏘고 나서 그것을 주워오라고 하는 이야기에도 등장한다. 스사노가 신라계통의 신임은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 '나리가부라'가 매개되어 있는 이야기가 신라와 관계있는 전승임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생각된다.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하면 이와 같이 소리가 나는 살촉, 나리가부라 풍습은 몽골 등에서 사용되는 북방문화 독자의 산물로 대륙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⁴⁷⁾ '나리가부라'는 우리나라 경북 경주 황오동 제4호분에서 소리 나는 살촉 '향전(響箭)'⁴⁸⁾이 발굴되었다는 사실과 비추어보면 대륙계 풍습이 우리나라 신라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풍습의 하나이며 신라계 도래인 하타씨에 의하여 전해졌을 가능성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45) 大山咋神、亦の名は、山末之大主神。この神は、近淡海國の日枝山に坐し、亦、葛野の松尾に坐して、鳴籥を用ゐる神ぞ。(『神代記』 p.97)

46) 나리가부라는 나무나 사슴뿔 등으로 만든 속이 빈 달걀모양의 장치를 화살촉 뒤에 달고 쏘면 큰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화살을 말한다. 『貞丈雜記』에 나리가부라의 부분에 붉은 옷칠(赤漆)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47) 鳥居龍藏(1924) 「人類學上より觀たる我邦の弓矢」 『有史以前の日本』 磯部甲陽堂, 松前健(1999) 『日本神話の研究』 桜楓社, p.137에서 재인용

48)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p.639.

5. 맺는말

‘니누리야형 신흔담’이란 남신이 니누리야의 모습으로 변하여 강 상류에서 떠내려 와 여성에게 접근하여 이와 혼인, 신의 아이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통칭한다. 이것은 결국 신과 이를 제사하는 무녀적 여성과의 혼인담으로 이스케이리히메 출생담과 가모전승이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전승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니누리야형 신흔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니누리야의 상징성, 神妻로서의 무녀성, 그리고 본 전승의 담당자인 도래계 씨족을 상정해보았다.

제2장에서는 記紀・風土記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케이리히메 출생담과 가모전승을 고찰하였다. 이스케이리히메의 출생담은 가모전승을 변용하여 진무황후의 출생담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神武記』에 편입되었으며, 또 가모전승은 『袖中抄』 『年中行事秘抄』 등에 유사전승이 실려 있어서 니누리야 신흔담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지만 『風土記』의 가모전승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양 전승 이외, 하루야마노카스미오토코의 구혼담(應神記), 아카루히메의 출생담(應神記), 사타노오카미의 출생담(出雲國風土記), 쓰미노에전설(万葉集) 등도 니누리야형 신흔담의 일종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신흔담의 주요 모티프인 니누리야의 상징성과 神妻인 ‘세야타타라히메’ ‘다마요리히메’의 무녀적 성격 및 ‘タタラ’라는 용어를 통하여 한반도와 관련 있는 전승임을 추정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승과 신라계 도래씨족 이라 일컬어지는 하타씨와의 관련성을 추정해 보았다. 붉은색에 의한 벽사의 주술적 기능을 담당한 아카조메씨는 하타씨와 동족 내지는 동일한 생활집단을 형성한 도래인 씨족이었다. 또 하타씨는 적색안료인 주사채굴 및 수은제련을 담당한 주체였으며, ‘나리가부라’ 역시 하타씨가 봉재하는 마쓰노대사의 제신이며, 나리가부라는 대륙계 풍습이 하타씨에 일본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니누리야형 신흔담에 대해 개론적인 이야기에

그쳐서 각각의 전승에 대한 세밀한 고찰 및 고고학적 측면에서의 고증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니누리야형 전승과 유사한 대만 원주민의 설화도 보고되고 있어서⁴⁹⁾ 이와 같은 남방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는 점 등은 다음 기회에 논하고 싶다.

참고문헌

- 노성환 역주(1987) 『古事記』(中) 예전사, p.42.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p.639.
- 宇治谷孟訳註(2001) 『続日本紀(上)』講談社, p.51.
植垣節也(1998) 『風土記』小学館, pp.181-182, pp.437-439.
大林太郎・吉田敦彦監修(2000) 『日本神話事典』大和書房, pp.240-241.
加藤謙吉(2002) 『秦氏とその民』白水社, pp.48-50, pp.120-122, p.200.
倉野憲司(1978) 『古事記評解』有精堂, p.108.
倉野憲治・武田祐吉校注(1982) 『古事記』(補註14) 岩波書店, p.161.
小島憲之・直木孝次郎・西宮一民(1994) 『日本書紀』小学館, p.105, pp.202-203.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校注(1983) 『日本書紀(上)』岩波書店, p.131.
上代語辞典編纂委員会(1983) 『時代別国語大辞典 上代編』三省堂, p.546.
高木敏雄(1973) 『日本神話伝説の研究』平凡社, p.201, p.317, pp.321-322.
次田真幸(1973) 『日本神話の構成』明治書院, pp.377-379, p.381, p.390, pp. 401-405.
中村修也(1994) 『秦氏とカモ氏』臨川書店, p.78.
肥後和男(1938) 『日本神話研究』河出書房, p.139, pp.231-234, pp.279-281.
松前健(1985) 『大和国家と神話伝承』雄山閣, p.222, p.223.
_____(1999) 『日本神話の研究』桜楓社, p.137.
松村武雄(1983) 『日本神話の研究4』培風館, pp.732-743, p.737, p.739.
柳田国男(1962) 『玉依姫考』『定本柳田国男集9』筑摩書房, pp.41-62.
山口佳紀・神野志隆光(1997) 『古事記』小学館, p.97, p.157, pp.279-280.
三品彰英(1975) 『建国神話の諸問題』平凡社, pp.258-262, pp.272-274.
_____(1972) 『増補日鮮神話前説の研究』平凡社, pp.128-140.
吉井巖(1992) 『天皇の系譜と神話(二)』塙書房, p.190, pp.199-200.
和田清(1981) 『魏志倭人伝・後漢書倭伝・宋書倭国伝・隋書倭国伝』岩波書店, p.45.

49) 松村武雄, 前掲書, p.743, 次田真幸, 前掲書, pp.377-378.

성 명(한 글) : 진 은 숙

(한 자) : 秦 恩 淑

(영 문) : Jin, Eun-Sook

논문영어제목 : A Study on the Myth of *Ninuriya*

소 속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E-mail : chin0801@jejunu.ac.kr

투 고 일 : 2014년 1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